

일본 절화류 시장동향분석

- '13년 출하량 4,067백만 송이. 출하액 2,054억엔 수준.
- 국화, 카네이션, 장미로 53% 차지 -

오사카aT센터 단신 24호 (201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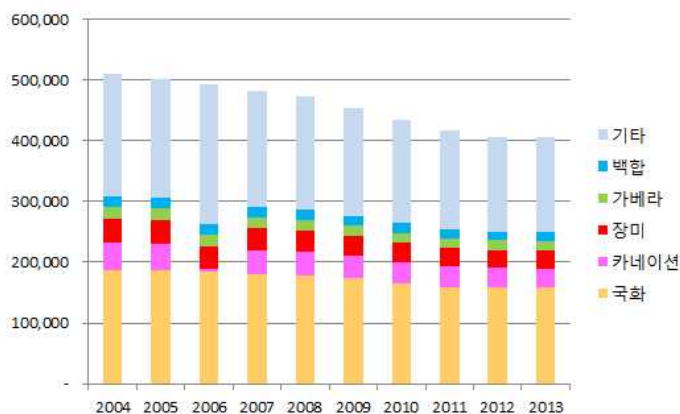
일본 절화류 출하 동향

절화류는 화훼 출하액의 약 60%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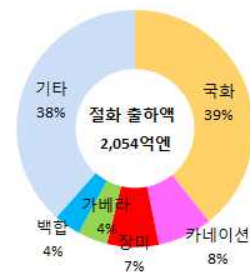
● 절화류 품목별 출하량 및 재배면적

- '13년 재배면적 15,350ha('12년대비 1% 감소), 출하량 4,067백만 송이
- 품목별 출하량 구성비율은 국화 39%, 카네이션 8%, 장미 7%이며, 3품목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2013년 절화류 품목별 출하량 (단위:만송이)



2013년 절화류 품목별 출하량 비율



(단위 : 만송이, 억엔) *하단 () 출하액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화	186,700	186,900	185,700	181,400	179,200	173,100	166,000	159,700	159,700	159,800 (650)
카네이션	45,210	43,500	4,110	38,730	38,780	36,720	34,330	33,120	31,430	30,400 (123)
장미	40,650	39,070	36,980	35,540	34,740	33,070	31,570	30,040	28,770	28,700 (181)
가베라	18,250	18,490	18,180	18,050	17,440	17,440	16,700	16,510	16,170	16,580
백합	17,920	17,400	17,560	17,030	17,080	16,750	15,790	15,500	14,890	14,830
기타	201,470	196,840	229,770	192,150	186,160	178,020	170,710	161,530	155,940	156,390
절화 출하량	510,200	502,200	492,300	482,900	473,400	455,100	435,100	416,400	406,900	406,700 (2,054)

‘13년 품목별 지역별 절화류 출하 동향

품 명	출하량 (천 송이)	재배면적 (a)	주요 산지(출하량, 단위:천송이)
절화류	4,067,000	1,535,000	아이치현(642,800), 오키나와현(341,300)
국화 합계	1,598,300	509,300	아이치현(465,600), 오키나와현(30,100)
윤국	863,000	270,100	아이치현(365,500), 후쿠오카현(85,700)
스프레임	251,500	72,900	아이치현(88,300), 가고시마현(54,100)
송이 작은 국화	483,800	166,400	오키나와현(219,800), 나라현(39,900)
카네이션	304,000	34,800	나가노현(55,200), 아이치현(52,300)
장미	287,000	39,500	아이치현(50,000), 시즈오카현(24,800)
린도	79,500	44,400	이와태현(49,500), 아키타현(6,760)
양란류	19,000	15,100	후쿠오카현(3,040), 도쿠시마현(2,940)
스타치스	118,600	19,100	와카야마현(60,400), 홋카이도(32,800)
가베라	165,800	9,420	시즈오카현(62,800), 후쿠오카현(25,500)
터키 도라지꽃	102,300	43,200	나가노현(13,300), 구마모토현(11,500)
백합	148,300	78,800	사이타마현(28,000), 고치현(17,400)
알스트로메리아	59,200	8,840	나가노현(20,100), 아이치현(11,000)
원	141,400	70,900	도쿄도(50,100), 오키나와현(31,300)
가지	213,500	373,700	시즈오카현(31,900), 이바라키현(29,100)

● 국화

- 재배면적 5,093ha, 출하량 1,598백만 송이
- 지역별 출하량 구성비율은 아이치현 29%, 오키나와현 19%, 후쿠오카현 7%, 가고시마현 6%로 되어 있어, 이 4개 지역으로 전국의 61%를 차지함.

● 카네이션

- 재배면적 348ha, 출하량 304백만 송이
- 유류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규모 축소 및 기타 농산물로 전환 등에 의해 재배면적이 ‘12년 대비 5% 축소함.
- 지역별 출하량 구성비율은 나가노현 18%, 아이치현 17%, 효고현 12%, 홋카이도 10%, 치바현 9%, 나가사키현 6%로 전체의 72%를 차지함.

● 장미

- 재배면적 395ha, 출하량 287백만 송이
- 지역별 출하량 구성비율은 아이치현 17%, 시즈오카현 9%, 후쿠오카현 7%, 야마가타현 6%, 에히메현 5%로 전국의 44%를 차지함.

● 가베라

- 재배면적 94ha, 출하량 165백만 송이
- 수요 증가에 따라 농가 규모가 확대해서 재배면적이 '12년 대비 3% 증가했음.
- 지역별 출하량 구성비율은 시즈오카현 38%, 후쿠오카현 15%, 아이치현 10%, 와카야마현 및 치바현 8%로 되어 있어, 이 5개 지역으로 전국의 79%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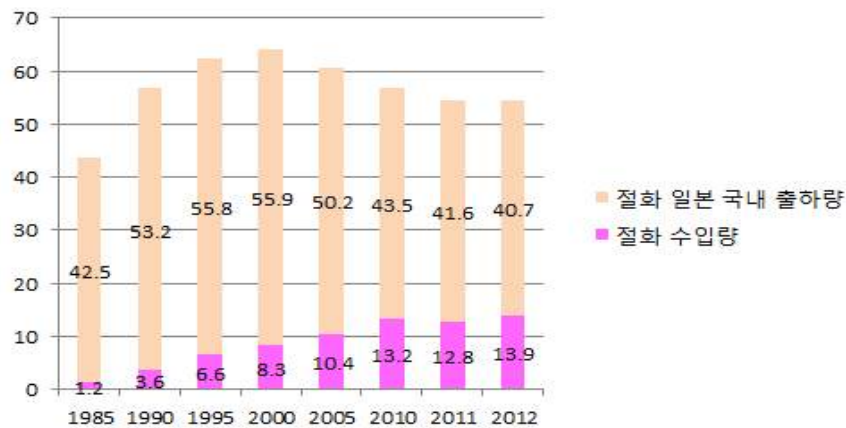
● 백합

- 재배면적 788ha, 출하량 148백만 송이
- 지역별 출하량 구성비율은 사이타마현 19%, 고치현 12%, 니가타현 11%, 치바현 및 가고시마현 6%, 후쿠오카현 5%로 전국의 약 60%를 차지함.

절화류 수입 동향

● 절화류 수입량 추이

- '12년 일본 국내 출하량이 4,069백만 송이(75%)
- '12년 수입량이 1,390백만 송이(25%)
- 카네이션, 장미, 국화의 수입 비중이 높음. 주요 수입처는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케냐, 중국 등



(단위 : 억 송이)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일본 국내 출하량	42.5	53.2	55.8	55.9	50.2	43.5	41.6	40.7
수입량	1.2	3.6	6.6	8.3	10.4	13.2	12.8	13.9
계	43.7	56.8	62.4	64.2	60.6	56.7	54.4	54.6
절화 수입 비율	3%	6%	11%	13%	17%	23%	24%	25%

● '12년 절화류 주요 품목별 수입 비율 및 수입량

- 품질 향상에 따라 카네이션 증가가 눈에 띈.
- 카네이션 시장규모는 126억엔 수준이며, 어머니의 날이나 일상적인 꽃다발 등 안정적 수요가 전망됨.

품목	수입산 비율	수입량 (억 송이)	수입처 제1위		수입처 제2위		수입처 제3위	
카네이션	52%	3.46	콜롬비아	66%	중국	26%	에콰도르	4%
장미	23%	0.85	케냐	32%	인도	22%	한국	16%
국화	17%	3.19	말레이시아	60%	중국	19%	베트남	12%
백합	8%	0.13	한국	91%	이스라엘	4%	기타	5%

*절화류 품목별 용도

(국화) 장례식, 불교화

(백합) 장식용, 불교 및 기타 종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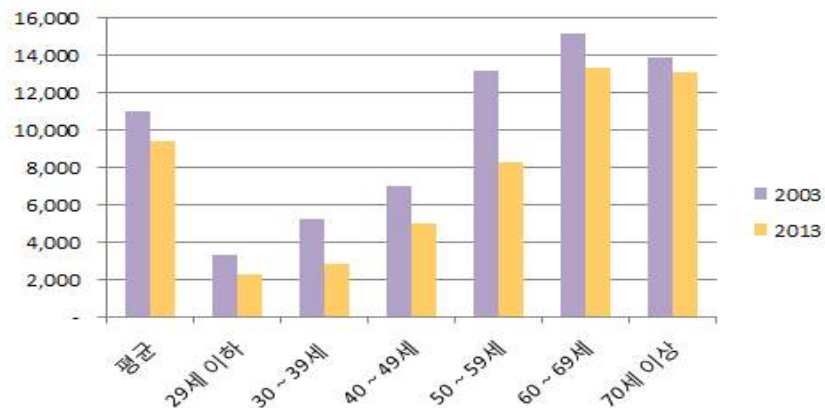
(장미) 예식장, 결혼식, 기념일

(카네이션) 어머니 날, 가정용 등

절화류 소비 동향

● 세대 당 절화류 연간 구입액 추이

- 소비자의 절화류 구입 금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소세에 있고 특히 청년층 구입 금액이 낮음.



(단위 : 엔)

	평균	29세 이하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9세	70세 이상
2003년	11,020	3,316	5,221	7,024	13,201	15,181	13,920
2013년	9,406	2,310	2,845	5,013	8,312	13,366	13,075

* 총무성 가계조사(일본 전국 2인이상의 세대 대상)

시사점

● 시장 관계자로부터의 히어링 조사에 따르면,

- 1) 바이어와 소비자가 품질로서 중시하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꽃"으로 만들기 위해 해외산지에서는 현지에서 원하는 채화 후의 전처리 및 출하 전의 온도 관리(저온 보관), 위생 관리 등을 생산·유통 과정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함.
- 2) 한국산 절화류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박스 단위로 꽃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등의 품질관리를 통해 시장확대 가능성이 있음.

※ 농림수산성 화훼생산출하통계 및 식품검역통계, 재무성 무역통계 참고

[문의 : 오사카aT센터 이무라마유 / imura@atcenter.or.jp]